

# 눈 내리는 마을

건너 마을 다듬이 소리가

눈발 사이로 다듬다듬 들려오면

보리밭의 보리는

봄을 꿈꾸고

시렁 위의 씨옥수수도

새앙쥐 같은 아이들도

잠이 든다

꿈나라의 마을에도

눈이 내리고

밤마실 나온 호랑이가

달디단 꽃감이 겁이 나서

어흥어흥 헛기침을 하면

눈사람의 한쪽 수염이

툭 떨어져서 솟이 된다

밤새 내린 눈에

고살길이 막히면

은하수 물빛 어린 까치들이

아침 소식을 전해 주고

다음 빙하기가 만년이나 남은

눈 내리는 마을의 하양 지붕이

먼 은하수까지 비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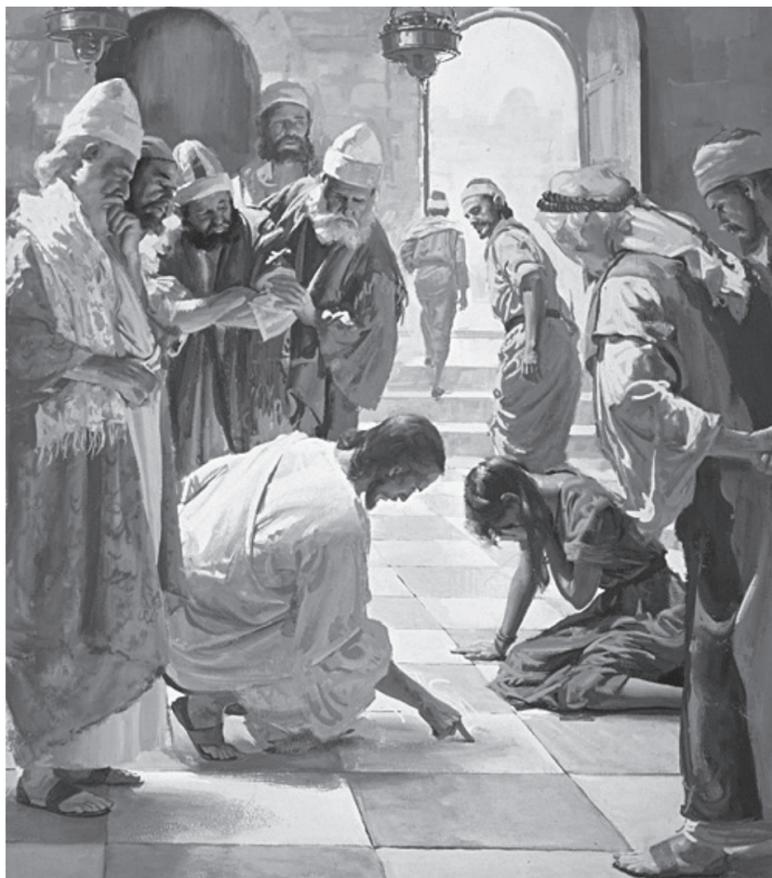
오 탁 번

## <종교컬럼>

오윤명 목사  
캘거리 생수 교회 담임



### "누가 더 옳은가"의 함정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사람들은 예수께 그 여인을 데려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갔다. 예수께서는 여인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다.

여인을 둘러서서 여인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심지어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 여인보다 더 크고 엄청난 죄, 즉 살인이나 강도, 폭행 같은 중죄를 지었을까? 아니면 누군가를 뒤에서 헐뜯거나, 소문을 전하거나, 작은 거짓말을 하는 정도의 가벼운(?) 죄를 지었을까?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7장 3절) 자신이 지은 죄는 훨씬 더 크고 심각한데,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죄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다. '내가 지은 죄를 실존적인 차원에서 직면하게 되면 그 죄가 너무나 크고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는 안중에도 없게 된다.' 이것이 자신의 죄와 직면하게 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다.

어느 날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면,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게 된다. 죄의 무게에 압도 당하게 된다. 죄에 대한 애통, 탄식, 미안한 마음이 너무나 크기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 마음만 가득하게 된다.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영혼 깊숙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6장 5절) 라는 이사야의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말 밖에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일들이 간음하다 잡혀온 사람들의 내면에도 일어났다고, 나는 믿는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고백하는데 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진실로 자신들의 죄의 무게를 감지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여인의 죄보다 큰 지, 작은 지를 따져 볼 수 없었다. 자신들의 죄가 너무나 크고 엄중하게 인식되었기에, 여인을 향해 돌을 들 수 없었고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수없이 많은 갈등이 우리 사회를 덮고 있다. 한국에서는 보수와 진보간의 갈등,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연일 마스크를 덮고 있다.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사회적 갈등의 민낯이 그 대로 드러나고 있다. 어찌 정치의 영역뿐이겠는가? 교회와 가정을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갈등을 겪고 있다. 갈등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 "누가 더 옳은가(혹은 그른가)"의 함정에서 빠져 나오는 것이다.

삶에서 시시비비는 명백하게 가려져야 한다. 누구의 잘못인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누구의 공로인지를 분명히 해서,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고, 상을 받을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이 공정한 사회이다. 그런데 시시비비에 집착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게 된다. "누가 더 옳은가?"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그래, 나도 잘 못 했지만, 네가 더 잘못했어." "내 책임도 있지만, 네가 책임이 훨씬 커." "네가 시작한 일이니까, 네가 먼저 나에게 사과를 해야지!" 이때 생기는 문제가 있다. 내 눈의 들보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다. "자신의 죄의 경중(輕重)을 따져보라. 이 여인보다 죄가 가벼운 사람은 돌을 들어 치고, 죄가 더 무거운 사람은 돌아가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성경이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네 눈의 들보를 보라'는 것이다. 그런데 "누가 더 옳은가"의 함정에 빠지면 이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누가 더 옳은가"의 함정에 빠지면 내 죄가 보이지 않는다. 내 죄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다. 내 죄의 심각성이 간과된다. 그러면 여인을 돌로 치려는 사람과 같이 될 뿐이다.

진실로 자신의 죄를 직면한 사람은, 자신이 살아날 길이, 주님이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 밖에 없음을 깨닫는다. 상대방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자비와 긍휼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은 경험한 사람은, 상대방이 베푸는 자비와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향해서도 그것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인 우리 모두하기에, 소망은 오직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8장 11절) 라는 주님의 말씀밖에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아무도 죄의 경중을 따져서, 누군가를 손가락질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우리 자신의 죄가 너무 심각하기에, 그저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존재일 뿐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베푸는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일 뿐이다. 나에게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만큼, 내 가족도, 이웃도, 친구도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이다. "네가 더 문제가 많잖아. 네 책임이 더 크잖아.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가 아니라, "나는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해 지기를 소망해 본다.